

제 204 호

연중 제29주일

1976. 10. 17.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98)

● 강론 ●



출세와 으뜸의 자세

한 봉 섭 신부

출세욕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다. 입신출세를 위해 자신의 모두를 버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형제로서 오늘 복음에 소개되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 역시 부모와 재산, 그외 모두를 버리고 출세를 위해 선뜻 나선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부른 예수 선생님이 틀림없이 지상 천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때 영광의 자리에 앉은 왕, 스승이 열렬한 추종의 댓가로 큰 벼슬지리를 줄 것이라고 믿고 미리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3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출세의 길은 그들의 기대에는 먼 것이었다. "당신들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요?" 하시며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인식 못하는 그들은 측은히 여기셨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게 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반문하시자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은 자신있게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고 감수 할 작오가 서 있다고 답변한다. 스승이 마시게 될 불운의 잔과 고난의 세례까지도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스승과 함께 동참할 작오가 서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39절 후반에서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시며, 미래의 출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께 맞겨서 미리 헌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신다.

인간적으로 출세를 원하는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자! 출세의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권세와 지위와 재산, 그리고 학식에 의한 출세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선악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가? 현실적 출세에 대한 집념과 수고는 어디까지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으로 이것들을 쟁취해야 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쟁취한 힘(力)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문제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43-44절) 으뜸으로 섬김을 받으며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사람들", 그들은 통치한답시고 실상 압제를 일삼는 일들이 많다. 사회의 수많은 조직속에서 으뜸(長)이라는 자들이 쪼꼬리만한 힘만 있으면 그것을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사람을 짓밟는 데 악용하려고 회의를 노린다. 사실 그러한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없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사회에 소의당한 자들을 아끼는 선정(善政)이다. 으뜸으로서 다스림의 원칙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죽기까지 봉사하는 다스림이다. 섬김을 받으며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던 예수님의 자세에서 이사회에의 모든 으뜸들이 그들의 힘을 만인의 선을 이룩하는데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자! (해성 중·고교 종교감 서리)

□시대의 징표□



월요 기도회

매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에는 신·구교가 합동으로 바치는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열린다.

누구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구교 크리스찬들이 종파를 떠나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데에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보겠다.

그들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은 순수하게 기도하고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위에 퍼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정치인은 아니다. 다만 이 나라 이 시대의 정치체제의 영향 아래 사는 한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고 말할 따름이다.

지난 10월 첫 월요일에도 그들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다. 겨우 15명(목사 7, 신부 3, 신교평신자 1, 천주교 신자 4)이 참석했지만 그들은 뜻을 같이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기에 숫자의 많고 적음에 구애 받지 않고 찬송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군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212장) "뜻없이 무릎꿇는 그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사는 그 생활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368장) "환난과 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증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378장)

그들은 기도회의 전례도 한번은 신교 양식으로, 한번은 천주교 양식으로 번갈아 진행한다.

유포티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말했다. "폭풍속에서 바람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나라의 번영과, 주님의 뜻인 진리·자유·정의 평화가 이땅위에 증만하기를 비는 일은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숲 정 이 산책

전국 울드레야에서
독같이 끝인 (참가율 37%)

한국에서 죽겠다.

키 크고 코가 큰 벽안(碧眼)의 한 서양 신부가 구라파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多發性 中樞 神經 硬化症)”

한국이 좋아서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도 외국인인기에 제약을 받는다. 그의 한국 체류 허가는 76년 11월 2일로 끝난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다시 체류 허가 연장 신청을 내야 한다. 작년 5월부터의 예로 비추어 보면 그의 체류 기간은 다시 3개월간 연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을 기약하고 본국에 가서 진찰을 받고 되돌아 오기는 너무나 어렵다. 적어도 6개월, 할 수만 있다면 1년만이라도 연장이 된다면 본국에 가서 자세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자신의 뼈는 한국에 묻고 싶은 것이 본인의 소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3개월만 연장이 된다면 진찰 한번 못받고 한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는 한국에서 죽겠다.

그분이 바로 지정환(池正煥, Didier t'Serstevens) 신부님이다.

지정환 신부는 외국인인면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띄워 줄 리 알려줬다. 구수하고도 유창하게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신용조합을 말할 때면 누구나 감탄하지 않고는 못배긴다. 입실에 세운 치즈공장은 한국 유일의 것이다. 한때는 인권회복과 사회정의 구현 운동에도 남다른 정열을 쏟아 매스컴을 타기도 했었다.

“수요(需要)없어 버리는 양유(羊乳) 보고 착안” (68.

8. 8. 조선일보) 한 입실 치즈 공장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협조하는 교회” (68. 9. 15. 가톨릭 시보)의 모습을 보여준 주인공이 바로 지정환 신부이다. 그는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흠뻑에 뛰어들어 농민의 친구가 되고, 신용조합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사묵하고 있다. 한때는 그의 이야기가 「샐터」잡지에 소개되어 뜨거운 사연의 펜·페터를 받기까지 했다.

그는 5년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프지도 않고 느낌만이 이상했을 뿐이다. 그런대로 그 다리를 이끌고 활동해 오던 중 매년 1월부터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한국생활이 17년째라지만 의자생활을 해오던 그에게 온돌방에 쪼그리고 앉는 일은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신용조합 운동으로 전국을 돌면서 치뤄 낸 무리한 일과들은 그의 다리에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한국의 일류 병원들을 찾아 진찰을 받았다. 병원마다 의견이 다르기까지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병은 한국 사람에게 없는 병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구라파와 북미(北美)지방에 많은 병이기에 그렇다. 사실은 외국에서까지도 그 병에 걸리면 “집에서 무리하지 말고 활동을 계속하라”고만 말할 정도라고, 지신부는 72년에 잠시 휴가를 얻어 본국에 갔을 때 텔레비전

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구라파에서도 그 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제 본국에 가면 제대로 진찰은 받을 수 있겠고 또 그 치료를 위한 처방은 얻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인간 지정환씨의 희망이다.

그는 서울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적어도 다섯 가지의 뇌검사까지 받았다. 심지어 90분동안에 세차례에 걸쳐 척추에 공기를 10cc, 15cc, 20cc씩 주입하여 그 공기를 뇌에 넣는 진찰을 받았을 적에는 3일동안이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끼는 검사도 받았다. 쓸개를 떼어 낸 수술보다도 그 고통이 심했다고 그는 웃으며 말한다.

서울의 병원에서는 그가 충격을 받을까 해서 병명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한다. “실령 내 다리가 아주 못쓰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닐지라도, 한 사제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제의 직분이 아니겠는가? 나는 하나도 두렵게 느끼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을 듣는 본 기자는 그분을 위해 웃고 있었지만 실장을 타고 흘러 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어찌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죽고 싶은 그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휠체어를 타고 여생을 보내도 좋다. 그러나 기왕이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사목생활을 할 수 있기를 빈다. 그분의 소망대로 체류 허가가 1년쯤 연장되어 본국에 가서 진찰을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빈다.

공교롭게도 그분은 1959년 12월 8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에 한국에 오셨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사제 지정환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韓甲甲 記>

★ 교우 여러분의 뜻을 책임지겠습니다 ★

전 일 양 부 점

(舊 댄디 양복점)

전 태 권(스테파노)

□오거리←→삼남극장중간(교사동 1가 175번지)

전화 ② 9 4 6 5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암(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②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전 동 ②2143	김제 45	무주	
군 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양 지 쪽□



그리스도와 나 (1)

김 정 원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
들이 한 몸을 이룬다」(에페 5,30~31)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마치 인간의 부부간의 관계 이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에페 5,21-33)

이 「하나의 신비」를 바오로는 구약(창세 2,24)에서부터 추출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와 의 관계에까지 소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신비」는 창세로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감추어져 있다가 결국 「구원의 신비」로 등장, 계시하게 된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느님께서 미리 세워 놓으셨던 계획대로된 것이어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에페 1. 9-10)

이 구원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의 일치를 말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 주셨습니다.」(에페 1,4) 바오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의 일치, 그것은 인간 부부간의 일치 그 이상의 것이다.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도 하나다. 바오로는 이 「합일」의 과정을 처음부터 「신비체」라는 말마디를 쓰지 않고 신앙을 갖게 되는 그때부터 그 의의를 살리고 있다(사도 9,4-5) 그가 말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공명에 이르기까지 (로마 14,8, 고후 4,10, 골로 1,24) 깊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사실 신앙인의 깊은 경륜을 일러주고 있다.

부부의 예를 든다면 부부가 서로 알게된 때(신앙)부터 그 결혼생활을 통해서 양자가 서로 깊은정의 애정을 합일에 까지 이르게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와 의 결합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찬 생활을 통해서 그 분과의 깊은 신비적인 결합에 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도 말했지만 바오로는 이 일치의 극치에 까지 도달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그의 서간 어디에서나 바오로의 정열은 능히 말하고자도 남음이 있다. 그 만큼 정열적인 인물이다. 역시 사랑은 정열없이 는 되지 않는 법일 것이다.

□시간 안내□

새로운 로사리오 기도(로제미 지음,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옮김, 150원)

현시대의 영적인 요구에 따른 새로운 로사리오 기도서이다.

성서에 치중한 이 새로운 방법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전통적인 방법이 때와 장소와, 모임의 성격에 따라 변화되게 사용될 때 더 아름다운 꽃다발이 엮어질 것이다. 이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다.

요십이 (168) 김병우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길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고버)

유행복 수예 인형 유행복 수예 인형

天使의 집 天使의 집

김선희(테레사)

□전동 성당 옆 골목 2-7249

유행복 수예 인형 유행복 수예 인형

天使의 집 天使의 집

김선희(테레사)

□전동 성당 옆 골목 2-7249

※急售 외판원 모집

삼풍화학(세탁제) 전주 대리점

□전동 성당 옆 골목 2-7249

한국(流)온수 온돌 연탄보일러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제 염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리니까요.

연락처: 전주시 중앙성당 상가
전화: ⑤ 4 8 7 4

범창규(베드루)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 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⑤ 1665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⑤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유영문<기에파노>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 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4 5 4 4

제 4 지 구 각 분 당 소 식

공지사항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10월 19일<화>-22<금>)
2. 교구 평협 정기총회 (24일<일>, 참가범위.....각 분당 사도회장, 지구 각 분과위원장, 교구단위 액션단체의장)
3. 가톨릭 농민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참가 희망자는 20일까지 신청 바람(숲정이 203호 참조)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18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센터)
5. 범 석규 신부 입원-전교사 연수회, 행복한 가정 운동 연수회 무기 연기
사목국장 범 석규 신부께서 지난 6일에 있는 분당 실무자 연수회기간중 간염증세가 발병하시어 현재 성모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20일간의 병원치료와 2개월의 요양이 필요 하합니다.
쾌유를 비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 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사 좌 신부 이 종 원
도 회 장 이 상 용

1. 성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2. 대학생 모임: 23일 오후 7시<보좌신부 사무실>
3. 묘지 관리 위원회: 17일 오후 2시 중앙성당 회의실
◎ 각 분당 주임신부, 사도회장, 사무장, 애명회장
4. 애명회 소식: 서노 1구 박남주씨 (5천원) 회사, 금암동 정구남 상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중앙 신용조합 조합원 교육실시: 20일~22일까지 매일 밤 7시30분 (중앙성당)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실험운동을 이해하고 서로 협동하며 잘 살기 위해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가일 희망자 환영>

(노총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성모회, 성우회,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선교위원회 모임: 23일(토) 오후 2시
3. 하이산스 공개 cell: 24일(일) 오후 2시
4. 반상회 일정<중노 2가>: 백학반<양노자>-19일, 장미반<백 베로니카>-20일, 목련반<김 베로니카>-21일, 코스모스반<이 레지나>-22일
5. ※성 프란치스코회 종신 서약식: 11월 1일 오후 2시 <장소-노총권주교회>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어린이 세례: 10월 24일 오후 7시
2. 주일학교 어린이 교리시간 및 미사 <토요일>오후 3시-교리, 4시 미사
3. 미사 시간 변경: 토요일, 주일 <오후 7시반>
4. □젊은이를 위한 「만남의 광장」: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 7시~9시. <미사, 성경연구, 성가연습>
5. 성당 신축 성금 / 4백만원 돌파!
업종자(예비자)-10만원, 장흥순(전동)-1천원, 신재희-5천원, 송금례, 이성원-각 1만원, 남상용-3만원, 양종권, 정복춘, 한운용, 윤홍덕-각 2만원
계 236,000원 누계 4,387,500원

◎ 더욱 뜨거운 협조 바랍니다.

6. 봉헌금<교무금>을 10월 31일까지 완납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봉헌금(교무금)을 10월 말 까지 사도회에 신입 바람 <십일조의 정신으로 양심껏 하세요> ※말일까지 미신입자는 사도회 임원과 신부님이 가정방문하여 신입 받겠습니다.
2. □주일 봉헌금 배가운동: 좀더 정성어린 예물 봉헌을...
3. 첫 영성체 교리에 부모님의 성의와 협조 바랍니다.
4. 76년(작년분) 교무금 완납 바랍니다.
5. 성당 수리 공사비를 남부해 주세요
6. 「파티마의 기적」영화상영: 8일, 9일 오후7시반 <부자성당> ◎사무실에서 입장권 예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태
사도 회장 박 장 춘

1. 면접 일정: 19일(화)-9반, 20일(수)-10반, 21일(목)-11반, 22일(금)-12반, 23일(토)-13반 <평화동>, 기타 □위의 해당 일정에 반원은 착오없이 협조 바랍니다.
2. 다음주는 전교 주일...많은 신도 전교회원을 권장합니다.
3. 견진자 교리 26일 저녁 8시부터 실시-전진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신용 협동조합 이사회: 공식 미사 후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유 석 중

1. 꼬미씨음 월례회: 오후 1시30분
2. 동반 회의: 오늘 저녁 미사 후
3. 사도회 임원회 결의사항: ①사도회 및 대의원 피정 예정, ②모든 신자는 가족과 함께 31일 남고산 소풍 예정
4. 77년도 교무금 10월 말까지 신입 바랍니다.
5. 신심 단체는 사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부 창제 안류 신부 사무장 임명 사도회 임원 개편	대의원 회의, 77년도 예산 보고	4,375원	제 3 지구	주현 등 지창인 등 황 등	재속 형제회 모임	82,730원
		어머니 성가대 야유회	25,570원			방저거 삼회 월례회	27,805원
		사무장 임명	10,790원			청년회 월례 연석회의	원
제 2 지구	대 문영명 윤명동 홍동열	성모회 월례회, 신자총회	18,620원	제 4 지구	중 앙 노총동 진자 서학동 전 등	성모회 월례회	95,311원
		「조청 강연회」	60,205원			성모회, 성우회, 학생회	36,475원
		바다의 별 푸리아회	27,480원			다음주 어린이 세례	17,905원
		구역장회, 학생회	16,995원			첫영성체교리	30,000원
제 3 지구	고 금여삼	주일학교 가을 소풍	14,800원	제 5 지구	무 장 진남순 인 창실	견진자 교리 실시	19,767원
		반상회 실시	15,975원			꼬미씨음 월례회, 동반회의	100,106원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8,495원			제 6 지구	주 제 진 안 원 창 실
청년회 결성!	16,465원	사도회 확대회의, 성모회 월례회	8,215원				
						반회합 일정 안내	9,275원
						19일 「하늘의 문」 L·M 모임	16,920원
						★축! 봉우회 발족	7,360원